

어느덧 내가 흥무초등학교에 근무한 지 8개월이 지나면서 힘도 들지만 보람을 느낄 때가 더 많다. 스승의 날 등교하자마자 다솜반 교실로 찾아와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치장을 하고 칠판에 하트 표시의 그림과 뽀뽀뽀한 글씨로 “선생님 사랑해요, 스승의 날 축하해요.”라고 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천사들의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향상될 때, 복도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우연히 만났을 때 멀리서도 “선생님”하며 뛰어와 안길 때면 정말 내가 다문화 선생님이 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가 되고 싶은 ‘제냐’, 통역사가 되고 싶은 ‘크리스티나’,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야스민’, 모델이 되고 싶은 ‘사비나’, 가수가 되고 싶은 ‘샤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내 천사들을 위해서 난 오늘도 씩씩하게 학교로 간다. 어쩌면 철새처럼 왔다가 러시아로 훌쩍 떠나갈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텃새처럼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먼 훗날 흥무초등학교 시절에 희미하게나마 가슴이 따뜻했던 한국어 선생님이 한 명 있었노라 기억되고 싶다.

*학생명은 가명임.

제10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다문화 상담사례

상담사례

제10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다문화 상담사례

상담사례

-
-
-

<상담(교)사>

- 최우수상** 마음을 성장시키는 초등 다문화상담 이야기
박정연 (대전전민초등학교)
- 우수상** 말하다 노래하다 꿈꾸다
오순이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 우수상** 부모님과 말 잘 인통해요
박명진 (북동중학교)
- 우수상**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학생 상담 사례
신영준 (안양고등학교)
- 장려상** 거울을 통해 본 나
김광숙 (흥진고등학교)
- 장려상** 4차산업과 다문화의 연관성
김애숙 (내황초등학교)
- 장려상** “ ㄹ 잘한다, 잘한다, 자란다! ㄹ ”
박주현 (대반초등학교)
- 장려상** 한결음~한결음~ 느리지만 우린 할 수 있어!!
황인옥 (야음초등학교)
- 장려상** 다양한 상담활동을 통해 다문화학생들에게서 얻은 소확행
배종숙 (강릉해림중학교)

최우수상

마음을 성장시키는 초등 다문화상담 이야기

박정연 (대전전민초등학교)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다문화 학생들과의 꾸준한 만남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개인 상담에서 아이의 지치고 불안한 마음을 탐색하고 치유하며, 진로탐색 활동으로 이어져 마음수련과 꿈 · 끼 탐색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집단 상담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칭찬과 위로를 할 수 있는 정서발달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자발적인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었으며, 한글 지도를 위한 놀이 활동을 함께 진행하여 한국어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며 협력하여 모둠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상담의 효과성이 대체로 높은 만족감으로 나타나 아이들의 긍정적 정체감 형성에도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의 사례다.

우수상

말하다 노래하다 꿈꾸다

오순이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어려운 환경과 생활 속에서 희망이 없던 학생이 지속적인 소통과 상담을 통해 아픔을 딛고 일어나 웃음과 새로운 진로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았다. 다문화 맞춤형교실과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시작으로 진로상담을 통한 요리 · 음악학원 등록 등의 진로 지원,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장학금 신청으로 경제적 지원까지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였다. 폭넓은 공감으로 적극적인 보살핌으로 노래를 잘하는 학생이 꿈과 희망을 갖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한 걸음 변화된 상담사례를 통해 '소외되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상담교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공유한 내용의 사례다.

우수상

부모님과는 말이 잘 안통해요

박명진 (북동중학교)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상담교사로서 학생과 부모를 수시로 상담하고 학생이 힘들어 하는 심리적인 부분을 다룬 내용을 담았다. 상담자는 호소문제 해결에 앞서 내담자의 성장과정과 성격, 환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갈등의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상담전략을 설정하여 상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학생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였으며, 상담으로 도출된 호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계관 협조, 학부모 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상담과정은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보다는 다문화가정의 특성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잘 담겨 있는 내용의 사례다.

우수상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학생 상담 사례

신영준 (안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1급 상담교사이면서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학습,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상담이 이루어진 내용을 담았다. 전체적인 상담 과정은 매 회 상담마다 상황에 맞는 상담목표를 재설정하였으며, 축어록을 요약하고 상담 내용을 기록하였다. 상담 이후 학생의 반응을 관찰하여 어떠한 변화와 결과가 나타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담자로서 자기성찰을 통해 느낀 점들을 되짚어 보고 경험한 상담사례가 일반화 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학생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돌봄이 어떤 것인가’를 가슴깊이 경험하고 상담교사로서 한층 성장한 내용의 사례다.

장려상

거울을 통해 본 나

김광숙 (흥진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의 상황에 따른 맞춤 상담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계하여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 내용을 담았다. 상담과정을 비통제회기, 통제회기, 연결회기, 종결회기로 구분하여 각 회기에 적합한 상담이 진행되도록 구성하였다. 비통제 회기에서는 KOPS, KIPR, SCT 등 심리검사를 통해 표현된 핵심감정을 탐색하였고, 통제 회기에서는 보상을 통해 학생이 감정을 다스리고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결회기에서는 학부모, 담임교사 등 학생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결회기에서는 학생의 심리적 변화를 측정하고 상담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 관련 사회안전망과 연계하였다. 그 결과 가정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내용의 사례다.

장려상

4차산업과 다문화의 연관성

김애숙 (내창초등학교)

4차 산업시대는 좌뇌의 활동으로 활성화되는 이성과 합리에 근거한 개인적 성향으로는 아무리 뛰어나도 성공지향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며,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나와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고 성장, 성숙하는 삶을 지향할 때 지속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다문화 학생들의 정서불안, 언어 및 학습부진, 경제적 결핍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장애를 그들만의 문제로만 한정짓기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한 부류로서 해결점을 지향하며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갈 때 나와 이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정이 담보되리라는 생각으로 중도입국생과 학부모의 상담을 진행한 내용의 사례다.

장려상

“月 잘한다, 잘한다, 자란다! 月”

박주현 (대반초등학교)

첫 발령지인 다문화 예비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진행하며 겪은 내용으로, 다문화상담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하여 학생과 상담교사가 함께 성장해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 다문화학생과의 상담이라는 고민과 함께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언어가 다른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겪은 어려움과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다문화학생이 학교에서 느꼈을 감정을 이해하였다. 그 어려움과 한계가 문화적, 언어적인 차이에서 질적으로 다를 수는 있으나 다문화학생, 다문화상담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유난스럽게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상담을 받는 학생도 상담을 하는 교사도 아직은 안개 속에서 헤매고는 있으나 서로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깨닫는 내용의 사례다.

장려상

한걸음~한걸음~ 느리지만 우린 할 수 있어!!

황인옥 (야음초등학교)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한 학생이 상담자의 마음을 열고 들어왔고 그 학생을 만나며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결중심상담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며, 타 상담교사와의 의논, 다문화지원센터 연계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에 대한 관심과 상담 이외에도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학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였다. 그 결과 학교 생활과 지역아동센터 생활에 한걸음 한걸음 느리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는 학생의 모습을 담은 내용의 사례다.

장려상

다양한 상담활동을 통해 다문화학생들에게서 얻은 소확행

배종숙 (강릉해람중학교)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 방법은 학생마다 달라야 하고,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도교사를 통한 꾸준한 학생 상담, 친구들을 통한 상담, 형과 누나인 대학생들을 통한 상담, 지역 및 학교의 어른들을 통한 상담 등에 중점을 두고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였다. 그 결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꿈을 갖게 되었고, 다문화 학생을 지도는 담임교사 등 동료교사들이 도움을 요청해 오는 등 작은 변화를 보였으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도한 다문화 학생들이 바람직한 변화를 통해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을 갖게 된 내용의 사례다.